(제43권 49호)

대강절 두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ND SUNDAY OF ADVENT

주후 2021년 12월 5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17장 "만백성 기뻐하여라" (새117)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56번 강림절(Advent) 2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윤영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16:13-20**	한경준 집사
찬 양 Anthem	**"Advent Prayer"**	찬양대
설 교 Sermon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9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만,
우리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날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2-3)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글개역 **마 16:15-16**)

"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 (NIV **Matthew 16:15-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2/5 (주일)	12/6 (월)	12/7 (화)	12/8 (수)	12/9 (목)	12/10 (금)	12/11 (토)
본문	대하5:1-6:11 요일4 나3 눅19	대하6:12-42 요일5 합1 눅20	대하7 요이1 합2 눅21	대하8 요삼1 합3 눅22	대하9 유1 습1 눅23	대하10 계1 습2 눅24	대하11,12 계2 습3 요1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2/8 오후7:30)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삿8:22-35)
토요 새벽기도회 (12/11 오전6:30)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63:1-11)

지난 주일(11/28)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1) –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 1:18-23)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상징물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 "ΙΧΘΥΣ(익투스)"라는 다섯 개의 철자는 (단지) 물고기 만이 아니라, (동시에) "Ιησους(예수), Χχριστος(그리스도), Θεος(하나님), Υιος(아들), Σωτηρ(구원자)"라는 각각의 단어의 첫글자로서, (이는) '예수님'의 대한 신앙고백이 그대로 담긴 단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를 분명히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물고기를 뜻하는 "ΙΧΘΥΣ(익투스)"라는 단어가 담고있던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미션(Mission)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Sin)로부터 비롯되며,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1)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2)주님을 닮은 거룩함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며, 능력임을 고백하며, 3)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